

‘트롯신이 떴다’, ‘뽕송아학당’으로부터 타격



민경숙 | TNMS 대표
매스커뮤니케이션 박사
min.gs@tnms.tv

트롯열풍을 타고 시작한 SBS 예능 <트롯신이 떴다>가 2020년 3월 4일 첫 방송에서 두자리 시청률 10.3%로 기분 좋게 시작했다. 4회에서는 시청률이 12.0%(TNMS, 전국가구)까지 올라갔다. 하지만 5월 13일부터 동시간대에 TV조선에서 임영웅, 영탁, 이찬원, 장민호 등 미스터트롯맨들을 중심으로 <뽕송아학당>을 편성하자 같은날 방송된 <트롯신이 떴다> 10회는 시청률이 6%까지 급격히 하락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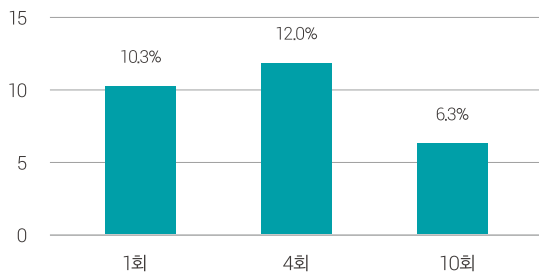
<뽕송아학당>이 시작하면서 <트롯신이 떴다> 시청자는 본방송에서만 첫 방송 대비 121만명이 빠져 나갔다. <트롯신이 떴다>는 남진, 김연자, 주현미, 진성, 설운도, 장윤정 등 유명 트로트 가수들이 총 출연하고 있다. 1주일 동안 본방송과 재방송 그리고 VOD 시청자를 모두 합한 통합시청자 수 데이터(TV Total Audience : TTA)에서는 <트롯신이 떴다>는 1회 대비 10회 TTA 시청자 수가 367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. <뽕송아학당>이 시작되면서 본방송에서 보다 TTA 통합데이터에서 더 많은 타격을 받은 것이다.

<뽕송아학당> 1회 TTA 시청자수는 552만명이고 같은날 본방송을 한 <트롯신이 떴다> 10회 TTA 시청자 수는 361만명으로 191만명 차이를 보였다. <뽕송아학당>이 <트롯신이 떴다>와의 경쟁에서는 승리 했지만, 만약 <뽕송아학당>이 <트롯신이 떴다>와 다른 시간대에 편성됐다면 트로트 시청자 저변 확대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은 남는다. **K A A**

<표 1> 트롯신이 떴다 시청률

자료출처 : TNMS

(단위 : %)



<표 2> 5월 31일 TTA 시청자 수

자료출처 : TNMS

(단위 : 만명)

